

올림픽 반대 국제 공동집회 : 2022년 5월 21~22일 프랑스의 센생드니에서 만나자

우리는 2012년 개최지 런던에서 500여명이 살던 영국 최대 주거협동 조합인 클레이스레인 단지(Clays Lane Estate)가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주민들이 감자와 아티초크, 콜리플라워 등을 재배해오던 지역 공동텃밭(Manor Garden Allotments)도 파괴되었다.

2014년 개최지 소치에서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오래도록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온 국유림이 파괴되었고, 깨끗하게 밀려난 자리에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2016년 개최지 리우에서는 올림픽 공원 부지에 인접한 오토드로모 마을(Vila Autódromo)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오토드로모는 수십년 동안 800여 가구의 보금자리였던 어촌 마을이다. 이들을 비롯해 2016년을 앞두고 도시 전역에서 2만 2천여 가구가 강제이주되었다. 우리는 탱크를 동반한 군병력이 파벨라(favela, 빈민가)를 점령하는 것도, 골프장을 짓기 위해 환경보호구역이 매각되는 것도 보았다.

2018년 개최지 평창에서는 스키장 건설을 위해 500년의 세월 동안 보호받던 숲인 가리왕산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2020년 개최지 도쿄에서 가스미가오카 공공주택단지(都営霞ヶ丘アパート)가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이 아파트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강제퇴거된 주민들이 정착한 곳이었다.

베이징에서는 귀중한 수자원을 탈취하여 건조한 산악지대에 인공눈을 뿌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역의 자원을 소진할 동계 스포츠 산업이 자리잡는 것을 보았다.

밀라노-코르티나에서는 동부 알프스 산악 지대의 파괴가 자행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한 유네스코 돌로미티 재단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덕에, 2026년을 앞두고 올림픽은 새로운 환경파괴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되어가고 있다.

2028년 개최 예정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에코파크 호수(Echo Park Lake) 인근 텐트에 거주하는 200여명을 폭력적으로 퇴거시키고, 공공장소를 폐쇄한 후 군사화가 진행되는 것을 이미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에 얼마 남지 않은 흑인 거주 지구인 잉글우드(Inglewood)가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새로운 경기장이 들어서면서 임대료가 급등하고, 지역 상권이 망가지며,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올림픽 개최라는 명분 하에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공공장소와 녹지의 파괴, 주거와 커뮤니티의 붕괴를 몇 번이고 목격해왔다.

각 지역에서 개별로 감내하기에는 우리의 분노가 이미 차고 넘치기에, 전 세계의 동료들은 파리에 모일 것이다. 우리 중 누군가는 집을 잃었고, 누군가는 삶과 커뮤니티를 잃었고, 누군가는 권리를 잃었다.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 서로의 경험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리에 모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그 협력자들은 국경을 넘어 긴밀히 조직되어 있기에,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함께 해야 한다.

이러한 집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동료들과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할 수 있다. 우리를 각각 고립시켜 외로이 싸우도록 만드는 것은 자본가 계급의 일반적인 수법이다. 우리는 그들이 가장 큰 위협을 느낄 때는 우리가 힘을 합쳐 같이 싸울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개별의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올림픽 그 자체에 맞서나갈 강력하고 의미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 올림픽들의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고, 이전과는 달리 보다 간소화되고 신중한 모델을 제시할 거라고 파리 조직위는 말한다. 파리 시장은 이번 올림픽이 보다 생태 친화적인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거라고 말한다. 많은 프랑스인들은 의심없이 이번 올림픽이 역대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은 파리 사람들이 보스톤이나 함부르크, 부다페스트에서 올림픽 유치를 거부한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한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그러나 올림픽 개최를 2년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불가능한 환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우리는 비영리주택조합 ADEF가 운영하는 노동자 주택이 선수촌 진입로 공사를 위해 철거되는 것을 보았다. 이주노동자인 기존 거주자들은 이 글이 작성되고 있는 현 시점까지도 제대로 된 재정착 대책없이 좁은 임시 주택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IOC조차도 불필요하다고 언급한 미디어 빌리지 건설을 위해 유럽연합 지정 자연보호 구역이자 국립공원인 에르드방(Aire des Vents) 공원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오베르빌리에(Aubervilliers) 노동자 텃밭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런던의 지역 공동텃밭에서처럼 땅을 콘크리트로 덮고 있다. 여기에 지을 것은 대회에서는 사용하지도 않을 올림픽 "훈련용" 수영장이다.

타베르니(Taverny)와 상를라포레(Saint-Leu-la-Forêt)에서는 멀쩡한 수영장 2개를 부수고 올림픽 규격의 새 수영장이 지어질 것이다. 상드마르(Champs-de-Mars) 공원의 땅은 또 다른 올림픽 관련 개발사업(Grand Palais Éphémère)을 위해 콘크리트로 덮혔다. 엘랑쿠르(Élancourt)에서는 산악자전거 경기 코스 조성을 위해 나무들이 잘려나갈 예정이다.

2024년 파리 올림픽 역시 여타의 올림픽과 다를 게 없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재해가 되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윤은 사적으로 점유되고 부채는 공공에 전가될 것이다. 최근 개최된 대회에 비하여 다소 규모가 작을지는 몰라도, 올림픽이 개최지에서 행사하는 막대한 권한과 영향력은 변함없다.

2022년 5월 21일과 22일에 파리 지역에서 국제 올림픽 반대 주말이 진행된다. 영국, 러시아, 브라질, 일본, 미국 등지에서 참가하여 서로의 견해와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21일에는 2024 파리 올림픽의 도시, "재생" 사업의 중심지 센생드니(Seine-Saint-Denis)에서 집회가 진행된다. 22일에는 라쿠르뇌브(la Courneuve)와 오베르빌리에(Aubervilliers)의 땅에서 벌어진 올림픽의 참상을 보고 공동의 투쟁을 이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 이번 집회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올림픽 재해에 맞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어떤 사람들은 올림픽 폐지를 외치는 일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한다.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지난 하계올림픽 개최 당시 일본 사람 중 80%가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반대했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올림픽 개최 직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도 올림픽을 막을 수 없다면 누가 이를 멈출 수 있겠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올림픽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이미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있는 자본주의

체제가 계속 혼란과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올림픽은 석유도 은행도 아니며, 올림픽을 막아내는 것 만으로는 부패한 세계질서를 바꿀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번 생각해보자. 최근의 개최지에서 많은 이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이 불필요한 행사 조차 멈출 수 없다면, 어떻게 석유나 은행이 없는 세상을 꿈꿀 수 있을까?

IOC는 궁지에 몰려 있다. 80%의 일본 사람들이 도쿄 올림픽에 반대하기 전에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배제의 경기”를 비판하기 위해 수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2013년 이래로 유치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모두가 올림픽을 거부하는 결론을 내렸다. IOC에 1조 6천억 원(1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NBC는 도쿄올림픽 이후 급감한 시청률로 인해 광고주들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했다.

이것은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 어디에서도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으려 한다면 올림픽 사업은 끝난다. 올림픽의 종식을 최대한 앞당겨보자. 아직 우리에게 2030년 올림픽 재해로부터 샤푸로와 피레네-바르셀로나를, 2034년 동계 올림픽으로부터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를 구해낼 시간이 있다.

5월에 만나자.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더 많은 정보는 이후에 계속 안내될 것이다.